

국민 33% 코로나에 불안요인 1위 '신종질병'

통계청 2022년 사회조사결과 발표 국가안보·범죄발생 순...인재는 8%

우리나라 국민 세 명 중 한 명만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느낀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는 '신종질병'을 꼽았으며, '인재'라고 답한 비율은 8%로 2년 전보다 늘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2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33.3%로 2년 전보다 1.5%포인트(p) 증가했다.

5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우리 사회가 안전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2.3%다. 앞으로 5년 후 우리 사회가 안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2.6%로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위험해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1.5%를 차지했다.

국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크게 보는 불안 요인은 '신종질병'으로 응답 비율은 21.0%다. 3년 가까이 코로

나19가 지속된 데 따른 높은 응답률로 분석된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32.8%)과 비교해서는 11.8%p 감소했다.

그 뒤로 국가안보(14.5%), 범죄발생(13.9%), 경제적 위험(13.3%) 등 순이었다. 인재라고 답한 비율은 8%로 2년 전보다 2.4%p가 늘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올해 5월11~26일 동안 진행돼 해당 응답은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무관하다.

남녀 모두 신종질병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봤지만, 남성은 국가안보(16.5%), 여성은 범죄발생(17.4%)이 우리 사회의 두 번째 불안 요인이라고 생각했다.

밤에 길거리를 혼자 걸었을 때 불안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여성(44.0%)이 남성(15.1%)보다 세 배 가까이 높았다. 13세 이상 전체 인구 중에는 세 명 중 한 명 비율인 29.6%가 밤에 혼자 걸으

면 불안하다고 답했다.

대체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야간 보행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비중이 높았다. 불안한 이유는 신문, 뉴스 등에서 사건, 사고를 접했기 때문이라는 비율이 41.4%로 가장 많았다. 인적이 드물(27.4%), 안전시설 부족(19.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공공질서 준수 수준은 모든 부문에서 2년 전보다 나아졌다. 차례 지키기가 82.4%로 공공질서 준수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2020년보다는 1.8%p 높아졌다. 교통약자 보호식 지키기(69.3%), 보행 질서(64.9%)도 2년 전과 비교해 향상됐다.

하지만 재난이나 긴급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 인지도는 대부분 2년 전에 비해 감소했다. 긴급상황 발생 시 신고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는 비율은 96.7%로 2년 전보다 0.4%p 떨어졌다.

지진, 화재 등 상황별 행동요령(85.6%)과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방법(61.0%)에 대한 인지도는 2020년보다 각 1.2%p, 0.2%p 감소했다. 소화기 사용법(75.2%)만 2년 전과 비교해 0.3%p 올랐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생활환경이 전반적으로 좋다고 체감하는 사람의 비중은 49.7%로 2020년과 비교해 4.0%p 증가했다. 반면 나쁘다고 체감하는 환경은 소음·진동(23.7%), 대기(17.6%), 토양(13.2%), 하천(12.8%) 순으로 집계됐다.

13세 이상 인구 5명 중 3명에 해당하는 64.6%는 미세먼지에 대해 불안함을 느낀다고 답했다. 기후변화(45.9%), 방사능(43.4%), 유해 화학물질(42.5%) 순으로 불안하다는 답이 많았다. 환경보호 부담금에 찬성하는 사람은 50.1%다.

코로나19 기간 자신이 방역수칙을 잘 지켰다는 사람은 99.1%로 대부분이었다. 타인이 잘 지켰다고 응답한 비중은 95.4%로 타인보다 스스로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평가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중에 '코로나 블루'(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를 느낀다는 사람 비중은 30.3%이다. 여성(35.1%)이 남성(25.5%)보다 코로나19로 일상생활 중 우울감을 많이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담양경찰-중앙파출소, 자율방범대와 공동체 치안 위한 동행 순찰

담양경찰서(서장 국승인) 중앙파출소는 최근 협력 치안을 통한 선제적 범죄예방 활동을 위해 자율방범대와 함께하는 민·경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담양=박종영기자



여수소방, 이달승 소방서장 여수시 CCTV 통합 관제센터 방문

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여수시 CCTV 통합 관제센터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완도소방,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

완도소방서(서장 김옥연)는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고 화재예방 활동을 펼친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진도소방, 제60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개최

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최근 제60주년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각종 현장에서 활약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행정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을 위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



광양소방, PMC텍과 함께하는 안전마을 만들기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지난 15일 PMC텍과 협력하여 화재 및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생활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하는 화재예방 나누는 안전행복」 기부 물품 전달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광양=김현근기자



광주 동부소방, 불조심 강조의 달 홍보캠페인 실시

광주 동부소방서는 불조심 강조의 달 홍보캠페인 및 전통시장 안전하기 좋은 날 행사를 지난 9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해킹한 네이버 계정 판매해 역대 수익 창긴 10명 검거

네이버 인기 블로그 운영자에 해킹 메일 보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인기 블로그 계정을 해킹해 얻은 개인 정보를 마케팅 업체들에게 넘기고 막대한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2대에 따르면 경찰은 사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침해) 위반 혐의로 해킹조직 총책 A(23)씨 등 10명을 검거했다.

이들 중 주범인 A씨 등 4명은 구

속됐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500여 곳의 네이버 인기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해킹 메일을 보내 개인정보를 빼돌려 제3자에게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실제 네이버 사이트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주소를 피해자들에게 메일로 보냈는데 해당 메일에서 '해의 국가에서 네이버 계정이 로그인되었다고 안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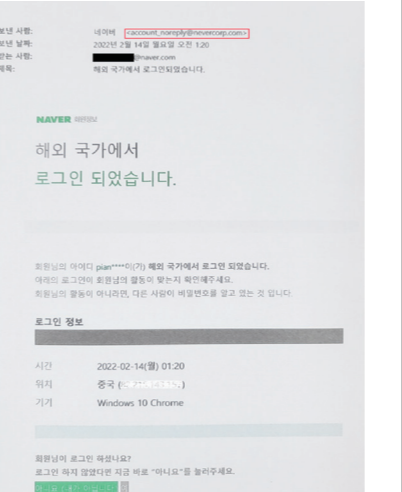
이들 보고 피해자들은 메일에서

안내하는 방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고 이 정보는 그대로 해킹 조직에게 넘어갔다.

마케팅 업체들 사이에서 네이버 인기 블로그 계정은 1계정당 1000여만 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일당은 계정을 판매하면서 사업자등록과 매매계약서 등도 작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킹한 계정 중 실제로 돈을 받고 판매한 계정은 18개, 약 2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인터넷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휴대폰 등과 연결된 2단계 인증 등의 보안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동취재본부



‘손 시러’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한 시민이 손을 녹이고 있다.

“왜 무시해” 고교동창생 집 찾아가 흥기 휘두른 20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고교 동창생을 흥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주거침입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9분 인천시 서구의 빌라 2, 3층 사이 계단에서 고교

동창 B씨의 어깨, 등 부위를 흥기로 6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전화해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에게 저항

해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평소 나를 무시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B씨가 크게 다치지 않아 진술을 마친 상태”라며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선욱기자